

도시 재생 관점에서 문화의 거리 공간특성 분석

- 국내 문화의 거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pati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Streets in Urban Regeneration Aspects

- Focused on a Case Analyses of Domestic Cultural Street -

Author

김미영 Kim, Mi-Young / 정회원,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박사과정
문정민 Moon, Jeong-Min / 정회원,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Abstract

A city is a type of culture as living styles people have accumulated. In Particular, urban streets are integrated bodies of culture based on regional history and tradition which are easily accessible by people. However, due to insensible expansion policy of current cities, decline of old downtowns which have kept cultur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hollowing out of the downtowns, expansion of new downtowns which have uniformed characteristics are weakening identities of each region. To overcome such problems, a culture-oriented approach as one of the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which have been appeared since 1980s is effective. Life style which has been formed by human activities can be considered as the culture of comprehensive concept and peculiar resources of each region are distinctive culture of each region.
Cultural streets in which people can share each other's feeling may influence regional activation through cultural influence while preserving regional tradition and histo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iscover spati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streets through theoretical examinations on formation of streets in as aspect of urban regeneration and identify their characteristics by analyzed cases of domestic cultural streets.

Keywords

문화, 거리, 도시 재생
Culture, Street, Urban regenera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도시는 인간이 오랫동안 살면서 쌓아온 생활방식과 양식의 축척인 문화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도시의 거리는 도시민들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늘 생활 속에 있는 곳으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문화의 집적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래 도시들의 무분별한 확산 정책으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간직한 구도심의 쇠퇴와 이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 지역성 없는 일률적인 신시가지의 확산은 지역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도시재생 전략의 하나인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형성된 삶의 양식을 포괄적인 개념의 문화라고 볼

수 있으며, 개별 도시와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그 장소만의 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문화자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교감하고 화합 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 형성은 지역의 전통과 역사성을 보전하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 영향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재생적 측면에서의 문화의 거리 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문화의 거리 구성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문화의 거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도심 재생적 측면에서 문화의 거리 공간특성을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moon327@lycos.co.kr

첫째, 문현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의 개념과 특성,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적 접근 측면에 대해 알아보고, 도시재생과 문화의 거리와의 관계성을 파악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기초로 문화의 거리 역할, 구성요소, 공간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틀을 설정한다.

분석틀은 문화의 거리 공간 특성을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도심 활성화 방안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고찰된 특성에 특화거리 조성 방법을 대입하여 공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연출 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설정한 분석틀을 토대로 선정한 국내 문화의 거리 사례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한다.

사례조사 대상은 국내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를 선정하였다. 사례 중에는 현재 활성화 되었거나, 현재 활성화 되지는 못했지만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추후 활성화 될 수 있는 의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 되는 문화의 거리를 모두 포함하였다. 사례조사 및 분석은 2010년 6월부터 10월 사이의 직접 방문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문현 조사의 병행으로 이루어졌다.

2. 도시재생과 문화의 거리

2.1. 도시재생의 개념과 특성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란 글자 그대로 풀면 '도시의 생기를 되살려내기', 즉 도시 재활성화를 뜻하는 것으로 활력을 잃거나 시대에 뒤쳐진 도시의 일부 혹은 전체를 대대적으로 수술해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뜻한다.¹⁾ 일반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함으로써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 생활·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시재생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에 의해 실행되는 계획인 만큼 매우 다양한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양적 추구에서 질적 추구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며 등장한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경제·사회·문화·예술적 활력의 제고를 통한 도시 활성화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의 공공성은 도시가 포함하는 도시민이 겪게 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를 담아낼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성은 인간 중심 커뮤니티의 재현으로, 이는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도시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며,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지역 커

뮤니티의 개선과 고용창출, 사회적 빈곤개선, 문화 예술 요소의 도입 등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특성과 문화의 이해가 필요 하겠다.²⁾

2.2.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적 접근

오늘날 많은 도시들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과거 고도성장기가 남겨 놓은 부정적 유산 해결과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도시화·산업화의 폐해나 불균등한 도시 발달로 인해 도시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쇠퇴의 길에 들어서 낙후되었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 쉽게 개선의 여지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부정적이거나 매력이 없는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최근 기존 도시의 개선과 발전의 자원으로 문화를 활용하는 전략이 도시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화란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사람들의 관심을 단시간에 집중시키는 매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큼 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제의 긴밀한 관계는 특정한 장소와 결합했을 때 더해지면서 장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즉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대외적 흡입력과 촉매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던 도시의 사회·경제·문화적 기능을 재활성화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의 개성과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자원은 고유한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하며 투자 유도,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소득 증대 등 경제적 측면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3. 도시재생과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도시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도입과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람간의 활발한 교류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시 속에서 인간의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인 것이다.³⁾

도시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거리 공간은 편리함, 아름다움, 감성 체험 등 다양한 욕구가 증가되면서 단순히 보행자의 이동공간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만남, 대화, 휴식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는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화의 거리는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통해 지역의 감성과 문화를 상징하고 도시적 활동을 수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2) 이주형·서의권·임종현,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재생의 유형 및 계획특성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9 No.8, 2009.10, pp.87~88 요약정리.

3) 이주형 외 2인, Op. cit., p.88

1) 조명래, 지구화시대 경제사회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중요성, 국토:국토연구원, 2007. 03, p.7

이는 지역통합과 지역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3. 문화의 거리 공간특성 분석

3.1. 문화의 거리 역할

거리공간은 쇼핑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놀이하는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소이자, 오후의 한때를 즐기는 노천카페이며 사람들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⁴⁾

이런 거리공간에 도시가 지닌 문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및 의미를 지니는 장소로 거듭나게 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상징적인 장소 및 특색이 있는 장소로 기억되도록 해주는 곳이 문화의 거리이다. 이러한 역할이 잘 수행되었을 때, 문화의 거리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도시로의 인상을 주게 해주며, 시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⁵⁾

3.2. 문화의 거리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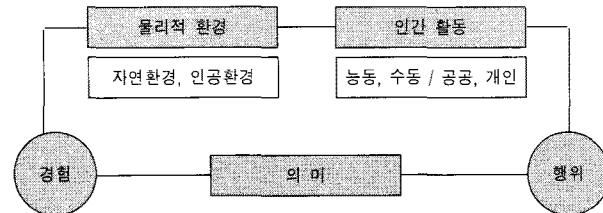
거리공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문화 활동을 포함한 비물리적인 요소와 이를 위한 물적 환경을 포함하는 물리적 요소가 있다. 비물리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는 각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합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거리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1차 요소는 가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구조적인 도로의 형태, 폭, 건축물의 형태 등이 해당된다. 2차 요소는 1차 요소 위에 형성되며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요소로 구성된다. 자연요소는 다시 물리적 요소와 비 물리적 요소로 구분되어 물리적 요소에는 가로수와 물, 돌과 같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고, 비 물리적 요소에는 낮과 밤, 계절의 변화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 변화 시킬 수 없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2차 요소에서의 인공요소는 가로 내 보행자 이동시의 편리성과 심미성 등을 위해 구성되는 요소들로 가로구조물과 가로 장치물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3차 요소는 1차, 2차 요소로 구성된 물리적 가로환경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와 가로에 내포되어 있었던 역사적 가치를 포함한다.

<표 1> 가로의 구성요소⁶⁾

구 분	내 용		
1차 요소	도로의 형태, 폭, 가로변의 건축물 (형태, 용도, 패사드, 인접필지)		
	자연요소	물리적 요소 비물리적 요소	기로수, 물, 돌 등 주야, 계절의 변화, 냄새 등
2차 요소	가로구조물 가로시설물 가로장치물		
	인공요소	교량, 지하도, 환기시설 등 전기통신시설, 가로등, 신호등 등 공중전화, 표지판, 조형물, 간판 등	
3차 요소	인간의 행위와 같은 모든 동적 구성원의 형태 가로에 내포되어 있는 역사적 가치		



<그림 1> 가로 구성요소

3.3. 문화의 거리 공간 특성

문화의 거리 구성에 대한 공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문화의 거리의 공간 특성을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각각의 특성이 문화의 거리라는 공간에서 표현되기 위한 세부적 방법들을 도출하기 위해 특화 거리의 조성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도심 활성화 방안의 특성에 대해서 계기석, 김형진(2003)은 도심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능적인 조건과 쾌적함을 위한 요건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도심이 기능적으로 활성화되려면 도심기능이 갖는 특징적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심기능이 갖고 있는 특징적 요소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도심기능의 개념, 종류 그리고 변화양상 등에 기초하여 다양성, 중심성, 상징성, 교류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기능적인 조건인 다양성은 외생적 요인으로 도심기능이 단순해지면서 도심쇠퇴가 유발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상업·업무기능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기능, 문화·위락 기능, 주거기능, 국제교류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도심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여러 여건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심성은 도심지역을 구심력을 살려 지속적으로 사람 또는 서비스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이며 여러 곳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해야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상징성은 도심지역이 도시가 생성되어 발전하기 시작한 최초의 거점으로서 그 도시의 많은 역사와 문화를 담

4) 현우정, 도시 공간 특성에 따른 장소성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10, p.19

5) 민로사·이재혁·제해성, 문화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p.237

6) 국토개발연구원, 2000년대를 대비한 도시정책방향, 1994, p.193

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교류성은 도심은 도시주민들이 가장 빈번이 대면하고 접촉하는 공간이며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서 주민과 방문객들 사이의 교류를 통해서 도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시의 패적함의 요건은 도시의 어메니티 측면을 패적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대 도시의 획일성과 건조함을 극복하고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된다. 패적성은 편리성, 환경성, 심미성, 문화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편리성은 도심으로 쉽게 접근하거나 도심에서 활동하기에 편리한 각종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환경성은 도심 내에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심미성은 도심의 패적성 제고를 위해서 건축물, 가로, 자연적 요소가 상호 조화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고유한 디자인, 가로시설물의 정연함,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의 정체성 있는 이미지가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성은 도심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유지, 관리하여 전통성을 계승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관심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심에 대한 친근감과 자부심을 제공한다.⁷⁾

<표 2> 도심 활성화 방안

도심 활성화 방안	
기능적으로 활성화	다양성, 중심성, 상징성, 교류성
패적함을 위한 요건	편리성, 환경성, 심미성, 문화성

이상에서 살펴본 도심 활성화 방안 중에서 도심의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조성과 관련된 다양성과 도심 지역의 구심적 역할에 관한 중심성은 거리의 조성적 측면보다는 도심지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이 더 강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특화거리 조성방법에 대해 현우정(2010)은 물리적인 방법과 비 물리적인 방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물리적인 방법은 그 성격에 따라 기능성, 유희성, 심미성으로 분류하였다. 기능성의 세부 사항은 가로의 유형 및 폭 정비, 가로 시설물 디자인, 가로 보도디자인, sign system 개선을 중심으로 하고 유희성은 오픈스페이스의 조성, 환경조형물의 도입, 특화 시설물의 도입과 인터랙션 요소 도입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심미성에는 건축

7) 계기석·김형진, 지방 대도시 도심의 기능 활성화와 패적성 제고방안, 국토연구원, 2003, p.31, p.36

물 파사드 디자인 개선, 옥외광고물 개선과 가로 식재 개선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물리적인 방법은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브랜드화, 특색 있는 업종을 통한 가로의 차별화, 축제 및 이벤트 개최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⁸⁾

<표 3> 특화거리 조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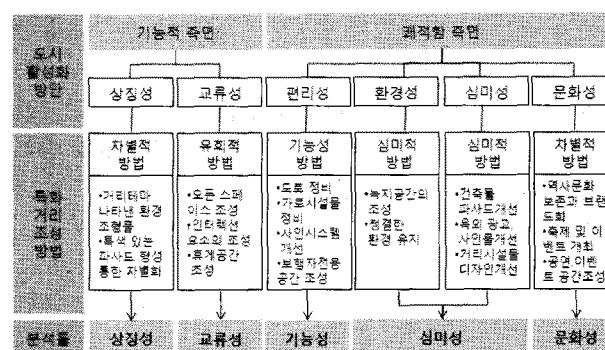
특화거리 조성 방법	
물리적 방법	기능성, 유희성, 심미성
비물리적 방법	차별화 전략

4. 문화의 거리 사례분석

4.1. 문화의 거리 공간 특성 분석틀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선행 연구의 분류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적 측면에서의 문화의 거리 공간특성을 그 성격에 따라 기능성, 교류성, 심미성, 상징성, 문화성의 5가지로 재분류하였으며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문화의 거리 공간 특성 분석틀



재분류한 문화의 거리 공간 특성을 각각 살펴보면, 첫째로 상징성은 거리의 테마를 나타내주는 환경 조형물이나 사인, BI, 가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파사드 형성을 통해서 지역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이다.



<그림 2> 공연문화 형상화 조형물, 서울 대학로



<그림 3> 지역풍물을 형상화 한 포토조형물, 인천 부평

둘째, 교류성은 거리공간에 오픈스페이스나 녹지공간의 조성하거나, 사용자와 주변 환경, 공간과의 양방향 소

8) 현우정, Op. cit., p.29, p.46

통이 이루어지는 인터랙션 요소의 도입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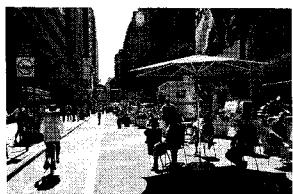


<그림 4> 거리복지 공간



<그림 5> 영상 가로등
을지로 한빛거리

셋째, 기능성은 물리적 환경의 편리성 측면으로 거리 공간의 유형에 따른 시설물 디자인, 보행자 전용공간의 정비, 사인물의 정비를 통해 거리의 인지성을 향상 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림 6> 보행자 전용도로
뉴욕 소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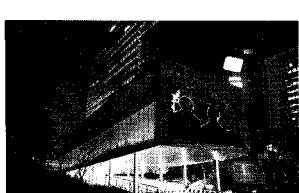


<그림 7> 거리명을 노점
인천 부평

넷째, 심미성은 거리공간의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거리의 개별 건축물, 시설물의 파사드, 광고물, 사인 같은 외관을 개선하는 것과 거리환경 내의 녹지공간을 형성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림 8> 사인물
전주 한옥마을



<그림 9> 미디어 갤러리 외관
을지로 한빛거리

다섯째, 문화성은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성을 포함한 지역 내의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고유한 장소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만의 축제 및 이벤트 개최를 통한 전통 문화 또는 현대문화행사의 체험을 통해서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10> 거리 안내센터
서울 인사동



<그림 11> 퍼포먼스 페스티벌
서울 노원 문화의거리

4.2. 사례분석

도시재생적 측면의 국내 문화의 거리 개발 사례를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문화의 거리 공간 특성 유형인 기능성, 교류성, 심미성, 문화성, 상징성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5> 서울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위치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63번지에서 관춘동 136번지에 이르는 도로	
개요	1988년 전통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4월부터 일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거리축제가 열린다. 이곳에 골동품 상가가 형성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였으며, 고미술품, 골동품, 골동서화 뿐 아니라 선인들의 생활도구·장신구 등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갖가지 전통 공예품이 집결되어 있어 옛 정취가 그득하다. 거리의 통과지역에는 서복학회터, 승동교회, 탑골공원, 원각사지삼층석탑, 수문회관, 운현궁, 조계사 등의 역사문화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이미지		
상징성	거리테마 조형물 조성	인사동 관광안내소 건물의 전통 기와 건물을 통해서 전통거리라는 상징성을 나타낸다.
교류성	거리테마 조형물 조성	인사동 입구에 전통 조형물 설치
기능성	오픈 스페이스 조성	남인사 관광안내소와 남인사 마당이 있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며, 각종 이벤트와 공연이 이루어짐.
심미성	보행자전용 공간 조성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개최하고 행사 중에는 각종 체험 이벤트가 다양하게 형성된다.
문화성	거리시설물 디자인 개선	차도 너비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고, 거리 바닥 정비
	역사문화보존과 브랜드화	일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지정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로 활용
	역사문화보존과 브랜드화	거리의 보도의 바닥을 전통기와와 같은 재질의 벽돌 블록으로 조성해 전통거리의 이미지를 형성함.
	역사문화보존과 브랜드화	일제시대부터 형성된 골동품답게 고미술, 골동품 등 전통제품 거리 형성하고 있다.
	역사문화보존과 브랜드화	주변 역사 문화 유적지가 많은 점을 이용한 역사 문화 탐방 행사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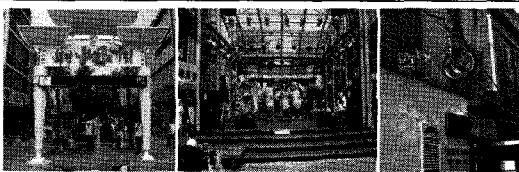
<표 6> 서울 대학로 문화예술의 거리

위치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사거리에서 혜화동 132번지 혜화동 로터리에 이르는 거리	
개요	1985년 대학로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되었다. 정부 주도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사용된 명칭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이곳은 경성제국대학이 들어서고 이후 서울대학으로 바뀌면서 대학가 문화가 주를 이루었던 곳이다. 대학이 옮겨간 자리에 신촌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던 문화단체와 극장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2004년에는 인사동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 문화지구로 지정돼 서울의 문화를 대표하는 거리가 됐다.	
이미지		
상징성	특색있는 파사드 형성	각종 공연 관련 포스터와 사인물 공간은 극장 거리의 상징성을 나타내 준다.
교류성	인터넷 쇼핑 조성	마로니에 공원의 장터와 각종 공연을 통해서 직접적인 교류를 형성할 수 있음.
기능성	사인시스템 개선	이정표 정비로 거리 구석구석의 소극장을 찾는데 편리함을 더함.
심미성	거리시설물 디자인 개선	거리 공간 곳곳에 문화 예술 관련 조형물과 아트 벤치가 설치됨.
문화성	축제 및 이벤트 개최	마로니에 공원 광장에서는 거리 공연이 이루어지고 대학로 문화 축제가 열린다.
	역사문화보존과 브랜드화	거리 곳곳에 형성된 크고 작은 극장들이 대학로의 문화성을 대표하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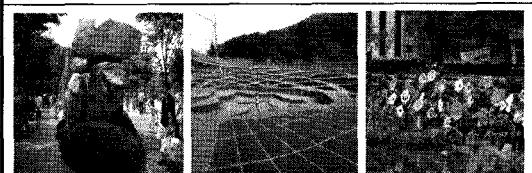
<표 7> 서울 노원 문화의 거리

위치	서울시 노원구 노원역 일대	
개요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원역 남쪽불역 일대에 노원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서 다채로운 공연이 주말저녁마다 펼쳐지는 등 문화와 이웃이 함께하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파발마길 초입에 파발마개선문을 조성하여 상징성을 강화한 자유의 세계로 들어서는 문을 만들고 비보이 동상 등 각종 조형물과 상징탑을 형성하고 스크린을 설치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장으로 계획하였다.	
이미지		
공간 특성	상징성	거리테마 조형물 파발마길에 파바라 개선문 조성으로 자유의 세계라는 거리의 상징탑 형성
	거리테마 조형물 조성	거리 곳곳에 조형물 형성
	교류성	인 터 레 선 요 소 물붓글씨 퍼포먼스 거리 조성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 할 수 있게 함
	기능성	가로시설물 정비 거리에 화강암석 설치해 휴게 공간 및 경계석 역할
	사인시스템 개선	도로 바닥정비, 야간경관조명 설치, 아정표 설치
	심미성	거리시설물 디자인 안개분수설치와 음악이 함께 나오는 시스템 형성
	문화성	공연, 이벤트 공간 공연장 무대 설치로 각종 공연이 이루어짐 간 조성
	축제 및 이벤트 개최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며, 퍼포먼스 페스티벌 개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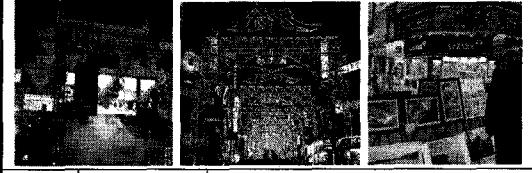
<표 8>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역 근처	
개요	1996년 국내 유통시장 개방 이후, 지역 경제의 기반이었던 재래시장이 점점되며 시작하자, 1998년 부평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재래시장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자리를 털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였다. 부평대로변에서 시장로터리 쪽 입구까지 이르는 약 250m 구간이 차 없는 거리에서 출발한 문화의 거리이다.	
이미지		
공간 특성	상징성	거리테마 조형물 자전거 도시를 상징화한 자전거 디자인의 가로등연출
	거리테마 조형물 조성	부평의 삼신두래농악을 상징화한 조형물 포토존 설치
	교류성	오픈스페이스 중앙무대 주변으로 집회 및 나눔 장터 열림
	기능성	오픈스페이스 한평 공원을 통한 소통 공간 형성
	도로정비	차 없는 거리로 도로 정비
	보행자전용 공간 조성	거리의 노점시설을 정비하여 보행자전용 도로 확보
	사인시스템 개선	문화의 거리 입구의 사인 및 게이트 형성으로 입구에 대한 인지성을 강화함
	심미성	녹지공간 조성 도심 속에 방치된 자투리땅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
	옥외시설물 개선	흉물스런 배너함을 거리의 역사를 사진으로 담아 조형물화 시킴
	문화성	축제 및 이벤트 개최 중앙무대를 중심으로 공연, 퍼포먼스 펼쳐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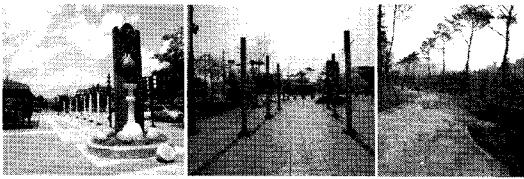
<표 9> 경기도 안양 예술공원 음식문화의 거리

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일원	
개요	안양 예술 공원에 조성된 경기도 음식문화거리는 지역 환경과 특색을 살린 건강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의 정착 및 문화, 복지 및 후식공간의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조성되었다. 생활 속의 예술과 창조적 문화에 기반을 두고 예술거리로의 명성에 맞게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물로 재단장하고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상설전시하고 있다.	
이미지		
공간 특성	상징성	예술 공원과 연계되어 형성되다 보니 음식문화거리는 상징성이 약화됨
	교류성	음식문화거리와 예술 공원의 연계로 시민들의 휴식 및 교류를 증진
	기능성	도로정비 가로시설물 정비
	심미성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정비 및 노후 건축물 정비
	문화성	녹지공간조성 건축물파사드 개선 축제 및 이벤트 개최, 공연, 이벤트 공간 조성
	축제 및 이벤트 개최	야외무대, 전시관 조성해서 음식문화축제 및 음식 승려 자랑 프로그램, 각종 공연 개최

<표 10> 대전 으능정이 거리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개요	으능정이 문화거리는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거리를 만들고자 조성되었으며, 이 거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96년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리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중,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대학생, 사회단체의 문화행사 장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잡화와 음식 상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미지		
공간 특성	상징성	거리테마 조형물 조성 옛날에 거리의 중심부에 천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있어 형성된 은행동이라는 지명에서 유래된 으능정이라는 지명의 사용의 거리를 상징화하고 있으며 거리 입구에 지명 새긴 조형물 설치
	교류성	오픈스페이스 조성 으능정이 축제를 위한 중앙 광장의 무대 조성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문화행사가 이루어진다.
	기능성	보행자전용 공간 조성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됨
	도로정비	가로시설물 정비 낡은 건물들의 리모델링
	심미성	거리시설물 디자인 개선 거리입구 사인물 조성 및 야간 경관 조성
	문화성	축제 및 이벤트 개최 각종 공연 및 으능정이 문화거리 축제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청년 문화의 거리 형성

<표 11> 경남 가야의 거리

위치	경남 김해시 구산동~봉황동	
개요	김해시는 금관가야의 발상지로서 시기지 전역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가야문화의 주요 유적지들을 연결하는 가로공원의 성격으로 가야의 거리를 조성하였다. 총연장 2.1km내에 찬란했던 가야 해상무역의 영화를 간직한 해반천과 더불어 주변에 산재한 봉황동 유적,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국립김해박물관을 우아로는 도시의 골격적 경관축으로서 도시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생활 속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미지		
공간 특성	상징성	거리테마 조형물 조성 철기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분수, 가야인의 생활환경이 함축된 주제 정원의 조성을 통해 거리의 특성을 상징화함
	교류성	휴게공간조성 축제 개최 및 녹지 공간 내 휴게 공간 조성으로 주민 및 방문객의 교류를 증대함
	기능성	가로시설물 정비 도심의 깨끗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며 유적들 간의 연결성을 높임
	심미성	녹지공간조성 도심 속 녹지 공간의 형성
	거리시설물 디자인 개선	바닥 분수 조성, 야관 조명 정비로 거리의 시각적 아름다움 형성
	문화성	역사문화보존과 브랜드화 지역 주요 유적지를 연결하는 가로 공원으로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할
		축제 및 이벤트 개최 가야문화축제가 개최됨

<표 12> 전남 나주 영산포 근대선창거리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 일대	
개요	1900년대 초 일제 강점기 당시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영산동 일대를 근대 역사거리로 조성, 관광 명소로 만들었다. 옛 영산포 선창에서 정미소 거리까지 750여m로 당시 형성된 시기지 모습과 일본식 가옥, 상가 등 100여 채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미지		
공간 특성	상징성	근대거리라는 거리의 테마는 간직하고 있으나 근대 건축물 외에는 이를 상징화 할 만한 요소가 없음
	교류성	사용자의 교류가 이루어질 공간 및 소통의 요소 없음
	기능성	물리적 환경의 정비 이루어지지 않음
	심미성	거리의 심미성을 위한 정비나 녹지 공간 등이 정비되지 않음
	문화성	역사문화보존과 브랜드화 1900년대 초 일제 강점기의 근대 역사를 간직한 역사 문화유산 간직함

4.3. 소결

위와 같은 국내 문화의 거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상징성은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나 특화시킨 거리의 상징물과 지역 테마를 이용한 상징 분수, 주제정원과 같은 공간의 조형물의 형성으로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

교류성은 나눔 장터, 오픈 스페이스 및 휴게 공간 형성을 통한 시민들이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참여형 축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 인터렉션 요소의 조성적 측면도 나타났다.

기능성은 도로나 노후 된 건물의 정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인시스템의 정비, 보행자 전용 도로의 설치와 같이 대부분 물리적 측면의 공간 개선 특성을 보였다.

심미성은 녹지 공간의 조성과 거리시설물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거리의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건축물 또는 사인물의 개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성은 특설 무대를 조성하거나 거리의 광장을 이용해 거리의 테마에 맞는 다양한 공연, 축제 이벤트를 개최하는 측면이 많이 나타나며 다음으로 지역의 전통적인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표 13> 사례별 문화 거리 공간특성 종합분석표

문화 거리 공간 특성	사례 공간							
	서울 인사동	서울 대학로	서울 노원	인천 부평	안양 만안구	대전 은행동	경남 김해	나주 영산포
거리테마 조형물 조성	●		●	●		●	●	
특색있는 파사트 형성		●						
오픈 스페이스 조성	●			●		●		
인터넷 요소의 조성	●	●	●					
휴게공간조성					●		●	
도로정비	●		●	●	●	●		
가로시설물 정비				●	●	●	●	●
사인시스템 개선			●	●				
보행자전용 공간 조성	●			●		●		
녹지공간조성				●	●			●
건축물파사드 개선						●		
옥외광고, 사인 시설물개선					●			
거리시설물 디자인 개선	●	●	●			●	●	
역사문화보존과 브랜드화	●	●					●	●
축제 및 이벤트 개최	●	●	●	●	●	●	●	
공연, 이벤트 공간 조성			●		●			

5. 결론

도시의 거리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거리의 환경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또한 늘 생활 속에 있는 곳으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문화의 집적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대 도시들의 무분별한 확장 정책으로 인한 지역의 문화성을 간직한 구도심의 쇠퇴와 지역성 없는 일률적인 신시가지의 확산은 지역의 정체성을 약화 시키고 있다. 이에 사람들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교감하고 화합 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의 조성을 통해 지역의 전통과 역사성을 보전하면서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의 거리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의 거리를 도시재생 관점인 도심 활성화 방안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특화 거리의 조성 방법을 대입하여 기능성, 교류성, 심미성, 문화성, 상징성의 5가지 문화의 거리 공간 특성을 도출하고 국내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의 거리는 물리적인 환경의 특성과, 공간 자체의 문화적·역사적 의미, 사용자인 인간의 행태를 고려한 다차원의 연구를 통해서 조성되어야 한다. 도로, 보도, 노후 된 건축물, 각종 광고, 사인물의 정비와 같은 물리적인 기반 환경의 개선 측면은 기능성과 심미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으로 단지 기능적인 공간의 개선보다는 기능성을 고려한 거리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간의 구성이 요구된다.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과 새로이 형성된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문화성과 상징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성은 지역 고유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 축제 및 이벤트화 시키는 프로그램적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고, 상징성은 지역 고유의 전통 문화나 특화시킨 거리를 상징하는 아이템의 물리적 형상화인 조형물과 상징적 공간의 형성으로 나타나며 문화성과 상징성의 병행적인 적용이 중요하다.

조성된 문화의 거리 이용 및 활성화와 관계된 교류적 특성은 나눔 장터, 참여형 축제와 같은 프로그램과 녹지 및 휴게 공간과 같은 소통 공간의 형성을 통해 강화된다. 이는 시민과 지역상인, 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을 통한 각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의 거리는 다양한 공간 특성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때, 지역의 사회 문화적으로 차별화된 이미지의 형성과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기초로 도출한 문화의 거리 공간 특성을 통해 국내 문화의 거리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전반적인 문화의 거리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두며, 향후 연구에서는 도출된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의 거리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 연출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환희, 문화공간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공간의 다변화 현황 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08
2. 계기석·김형진, 지방 대도시 도심의 기능 활성화와 폐적성 제 고방안, 국토연구원, 2003
3. 민로사·이재혁·제해성, 문화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4. 박현규, 도심재생을 위한 특화거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석사논문, 2004
5. 서정렬, 인문학적 접근사례를 통한 도시공간의 정체성과 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31호
6. 이주형·서의권·임종현,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재생의 유형 및 계획특성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9 No.8, 2009.10
7. 정아름, 문화도시 전략으로서의 장소 만들기, 부산대 석사논문, 2008
8. 정승오, 도시 문화가로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97
9. 최병두, 도시발전 전략에 있어 정체성 형성과 공적 공간의 구축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한국지리학회지 제14권 제5호, 2008.
10. 홍만영, 도시재생에 있어서 역사문화환경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09
11. 현우정, 도시 공간 특성에 따른 장소성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10

[논문접수 : 2010. 10. 31]

[1차 심사 : 2010. 11. 16]

[2차 심사 : 2010. 11. 27]

[제재확정 : 2010. 12. 10]